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시동' 일자리 만들어 인구 유출 방지

광주 시정

민선 5기의 마지막 해인 올해 광주시정의 핵심은 기존 사업의 마무리다. 광주시는 지난해만 해도 신규시책발굴과 대형 국제행사 유치 등을 담은 '메가비전(Mega Vision)'을 내놨지만, 지방선거(6월 4일)가 있는 올해에는 민선 5기 사업들을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는 분위기다.

시는 우선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시민주권 시대를 본격 실현하는 해로 삼는 한편 인권과 복지가 삶 속에 뿌리내리는 행복한 공동체 실현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국제 스포츠 선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오는 2015년 개관·개막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체제도 가동한다. 이 밖에 올해 말 완공되는 호남고속철도(KTX) 시대를 맞아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실천 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다.

◇시민주권시대 실현의 해=시는 정책입안부터 실행까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주권 시대를 실현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역발전 핵심과제와 시민 관심사업 등에 대해서는 시민여론조사를 제도화해 시민의 뜻을 적극 수렴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현장 투어와 온라인 정책토론, 트위터 번개 미팅 등을 할 계획이다. 또 정책발굴과 예산편성에도 시민이 직접 참여토록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시민이 정책 아이디어 제안, 채택, 집행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아고라'를 개최하고, 시민참여예산제도 내실있게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시민의 '말할 권리' 및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시민과의 만남의 날'과 '을(乙)을 위한 직소민원센터', '광주공동체 원탁회의' 등도 유지한다.

◇경제적으로 잘사는 공동체 건설=시는 올해 수출목표액을 전년 대비 33억 달러(20.6%) 증가한 193억달러로 정하고,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정책을 확대한다. 또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청년 창조기업 육성 등 청년일자리 창출, 기업 고객센터 유치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 2만 8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대통령 공약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및 친환경 그린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첫 단추로 빛그린산단을 자동차산업 전용 임대산단으로 추진하고, 광산업과 가전사업, 금형산업도 지속적으로 육성·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인권과 복지가 함께하는 행복도시 실현='인권선도 도시'로 자평하는 광주시는 국제사회 역할 확대를 목표로 전년에 이어 세계인권도시포럼을 개최하고, UN인권이사회 '지방정부와 인권'보고서에 광주인권도시 원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세계기독교유산으로 등재된 '5·18민주

화운동'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5·18아카이브를 오는 5월 개관하는 한편 한국민주주의 전당을 포함한 민주 인권·평화센터 조성 사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총체적 복지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오는 7월 광주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채무회리 행복상담센터 운영,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청소년 복합문화

당의 운영 주체를 애초 계획대로 문화부 소속 기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전당 앞 광장을 '5·18 민주광장'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또, 사직공원 전망타워(4월 준공)와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2009~2023), 아시아아크걸쳐파크(2011~2016) 등도 계획대로 진행한다. 시는 또 2015하계UN대회의 성공 개최를

애플화중심도시·국제스포츠 선도도시 도약 정책발굴·예산편성에도 시민 직접 참여 '광주-KIA 챔피언스필드' 명품구장 만들기

센터 건립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노인·장애인의 경제·사회적 자립 활동 지원과 의료 취약계층 건강주치의제 확대 등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국제스포츠 선도시 도약=시는 올해 말 완공 예정인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성공적인 개관을 위해 전

위해 남북 단일팀 구성을 비롯한 선수촌 및 신실경기장 건립 공사 등이 기한 내에 완공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특히 올해 개장하는 새 야구장 '광주-KIA 챔피언스필드'가 광주를 상징하는 명품 구장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올부터 KIA의 홈 구장으로 사용될 광주 새 야구장 모습. 2만2000여석 규모로 캐주얼, 전디서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췄다. /*박진표기자 mjna@



전남도는 신소재 기업들을 유치해 일자리와 인구수 늘리기 정책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영암 대불항 대정석탄 화물유반 크레인 제작 모습. /*박진표기자 mjna@

전남 도정

올해 전남도정의 핵심은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인구 유출을 막고, 잘 사는 농촌을 만드는 것이다. 또 가공·유통시설을 확충해 돈이 되는 수산업을 육성하고,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도 추진된다. 하지만 민선 5기를 마무리하는

입은 올해도 여전히 전남도의 화두다.

도는 중견기업과 생물, 신소재, 조선·해양산업 등을 육성하고 관련 기업을 유치한다는 신년 설계를 마쳤다. 이를 위해 수도권 이전기업 이행보증 수수료를 지원해주고, 중기자금 1550억원도 융자해준다.

또 동물대체시험인증, 해양용·복합소재 산업화, 해양레저단지 전용산단 조성 등을

는다.

도 경지면적의 45%가량을 유기농·무농약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127억원의 인증비를 지원한다. 또 농수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전문 판촉단(110명)을 운영하고 품목별 유통회사(4개), 산지유통시설(311개소) 등도 조성된다.

축산업에서는 동물복지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 축사시설을 현대화(400 농가)하고, 친환경축산물 인증비가 지원된다.

살기 좋은 농촌과 귀농을 위해 조성되고 있는 한옥마을인 행복마을에도 관심이 더해진다. 15개 마을을 행복마을로 신규 지정하고, 이들 마을을 홍보하기 위해 6억원이 배정됐다. 농어촌 체험마을(20개), 읍면소재지종합정비(33개), 생활환경정비(17개 시군)도 이뤄진다.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양식 단지인 양식섬을 중심으로 하는 수산업 전략도 마련됐다. 진도 해역 400ha에 150여원을 들여 양식섬을 만들고, 김종자연구센터 등 수산물 생산을 위한 연구 인프라도 확보하게 된다. 또 수산물산지가공시설(12개소), 유통물류센터(2개소)를 구축하고 공동가공시설(6개소)도 현대화된다.

◇문화·맞춤형 복지 확대=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더욱 많은 관광 자원을 발굴한다. 농어촌 작은 영화관(2개소)이 건립되고 문화콘텐츠 기업을 육성한다.

또 윈드서핑대회(8월), 국제호버크래프트대회(8월), 국제 열기구대회(10월) 등 이색 스포츠 행사도 열릴 예정이다.

올해는 특히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4월 11일~5월 11일)가 열려 바다를 끼고 있는 전남의 성장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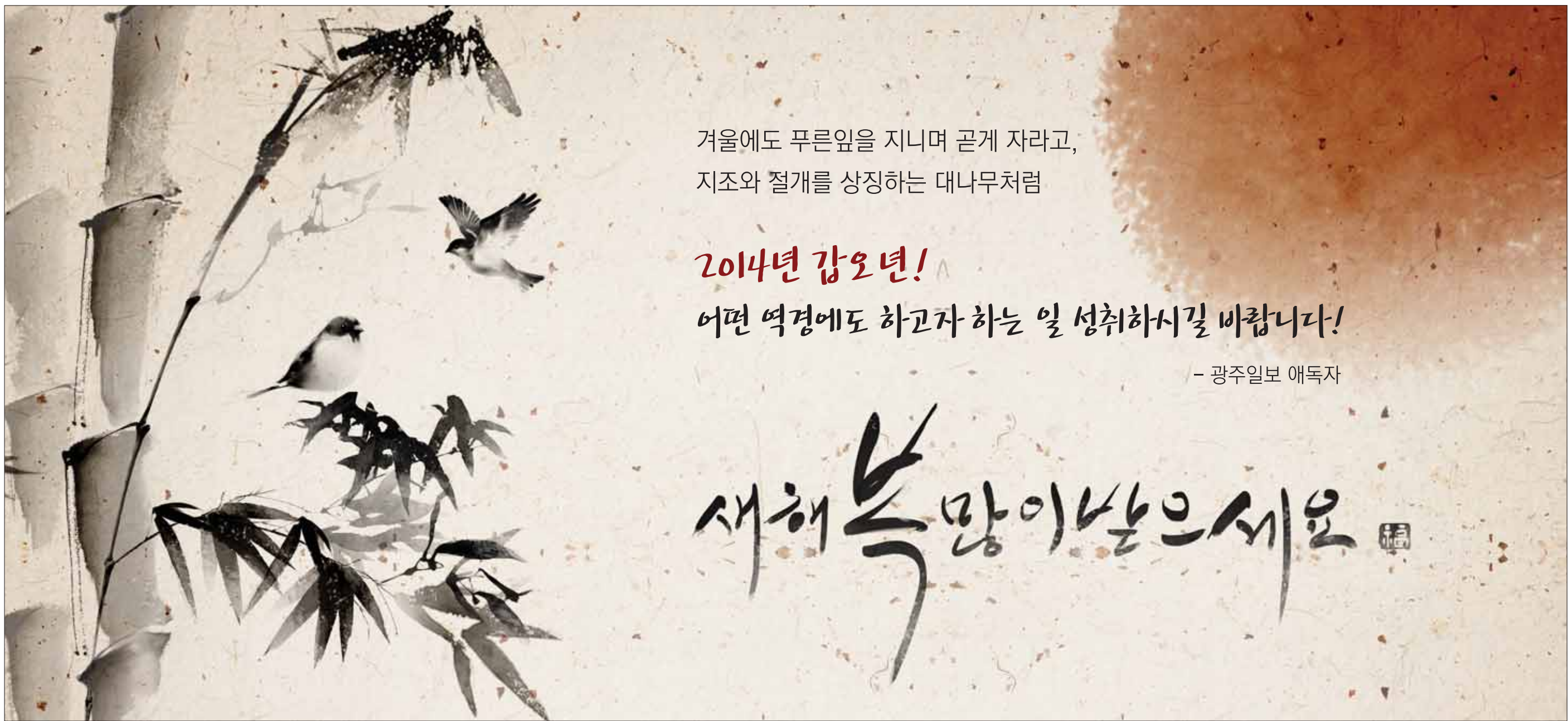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에 따라 31만여명의 노인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등 전남도의 복지 정책도 늘었다. 282개소의 노인생활시설이 조성되고, 108개면에 건강증진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6만7000여명에게 5대암 조기검진 및 치료비가 지원되고, 4만명은 정신질환·치매예방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 가공식을 연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3프로젝트) 조성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나주에 들어서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는 올해 공공기관 이전이 대부분 마무리 된다.

SOC분야에서는 광주~완도간 고속도로와 103지구에서 연륙·연도교 사업, 흑산도 소형공항도 건설도 추진된다.

이 밖에 19개 재해위험지구가 정비되고, 재해 위험이 있는 저수지 11곳도 정비된다. 5개 섬지역에 화재진압장비가 보급되며, 노후 소방차 37대로 교체되는 등 재난 시스템도 확충된다.

/*박진표기자 krah@kwangju.co.kr



겨울에도 푸른잎을 지니며 곧게 자라고,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대나무처럼

2014년 갑오년!
어떤 역경에도 하고자 하는 일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 광주일보 애독자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